≫食糧難의 現實과 展望≪

農業經濟 面에서

고 병 우
청와대 비서관

1 世界食糧難의 現況과 展望

H. Kissinger는 石油危機는 몇가지 資源危機의 Front Runner이며 食糧은 未久에 武器化할 可能性이 있다고 指摘했다.

食糧問題를 公式化하면

$$D=P\times\Delta C=L\times\Delta Y=S$$

즉 人口數에 1人當消費量을 乘한 需要에 대하여 耕地面積에 反收를 乘한 供給이 一致되느냐 못되느냐의 問題이다.

1973年 世界總人口는 約 38億, 總食糧 12억 M/T 消費 年平均 人口增加率은 2.1%, 耕地面積은 17억ha로 FAO 統計에 나타나 있다. 耕地面積의 擴張可能性은 現在의 2倍가 限界라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無限한 人口增加를 扶養하려면 反當生産性이 그에 相應해서 增加돼야 한다.

日本의 文藝春秋 4月號에는 食糧危機 題下에 論文을 發表하고 있는데 人口爆發과 異狀氣候가 連結되어 1時間에 420名, 1日에 10,000名의 餓死者가 續出하고 있다.

食糧需要의 增加는 人口 增加와 1人當所費量의 增加에 따라 增加한다. 後進國에서는 人口가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 先進國과 後進國의 人口增加率을 現在의 增加率로 推定하면 世界人口의 比率은 先進國 3, 後進國 7이 今世紀末에는 1:9로될 展望이다. 反面 先進國에서는 1人當消費量이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

主要國家別 1人當 糧穀消費量

(單位 : 파운드)

國別	1964~66	1972~74	增加率%
美國	1,600	1,850	16
쏘련	1,105	1,435	30
EC	900	1,000	11
日本	530	620	17
中共	420	430	2
發展途上國	370	395	7

資料 : 美農務省

Foreign Affairs誌 4月號에 美農務省經濟研究所副所長 Lyle D. Schertz의 寄稿에 依하면 發

展途上 國家들은 世界人口의 $^2/_3$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世界蛋白質量의 $^1/_4$밖에 攝取하지 못하고 있으며 畜産物에 依하여 蛋白質을 攝取하고 있는 先進國들은 畜産用 糧穀消費때문에 發展途上國家보다 4倍나 되는 糧穀을 消費하고 있다고 한다.

韓國人의 1人當 쇠고기 年間消費가 約 3파운드(約 2斤)인데 比해 美國人의 1人當 쇠고기 年間消費는 110파운드(83斤)에 達하며 1파운드의 쇠고기 生産에 必要한 穀物은 約 6.5파운드이다. 따라서 10億人口의 富裕國에서 畜産에 所要되는 糧穀과 20億人口의 低所得國家에서 食糧으로 使用하는 糧穀의 量은 맞먹는다는 것이다.

1人當 食糧消費量

區 分	穀 物	非穀物	計	備 考
韓 國	237kg (69%)	106kg (31%)	343kg	1972
日 本	161 (36%)	281 (64%)	442	1971
美 國	118 (17%)	579 (83%)	697	1968

1人當 GNP 500$까지는 穀物消費增大 500$ 以上이 되면 肉類消費로 代替

氣象條件은 亞細亞農業뿐 아니라 世界農業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다.

72年 氣象異變은 平常時 −40°C이던 南極이 4°C로 氣溫이 올라 비가 오고 中東砂漠에 눈이 오는 事態를 갖어왔고 世界各國은 類例없는 凶作이 왔다.

特히 凶年이 오면 家畜을 屠殺하던 쏘련이 從來의 方式을 바꾸어 2,800萬㌧의 小麥을 美國으로부터 輸入充當하므로서 美國의 小麥在庫는 바닥이 났다. (1961年 美國小麥備蓄 8,000萬㌧→1974年 備蓄 2,600萬㌧) 이는 國際小麥價格을 ㌧當 100$ 未滿線으로부터 220$ 以上까지 上昇케 하였다. (現時勢 130$線)

모든 것이 正常이라 假定할 경우 低所得國家들의 食糧輸入依存度는 1935年에는 1970年代의 水準의 2倍 程度가 될것으로 보고 있으며 後進國들의 糧穀消費는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急激히 增加될 것이다. 소련의 食糧政策轉換이 世界食糧波動을 이르켰지만 中央의 食糧自給政策이 萬一 輸入政策으로 轉換될때 더 큰 危機가 올것이며 美國등 食糧輸出國은 食糧援助政策에서 食糧武器化政策으로 轉換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食糧問題와 對策

38億의 世界人口가 17億ha의 農耕地를 耕作함으로서 1인當 耕地는 0.4ha에 達하면서도 世界食糧問題는 많은 人口의 餓死者를 내고 있음에 비추에 韓國의 人口 3,000萬名이 國土面積 約 1,000萬ha, 農耕地 約 230萬ha로서 1人當 耕地面積은 0.08ha, 農家戶當 耕地面積이 約 0.9ha로서 世界平均에 比하여 1人當 耕地面積이 $^1/_5$에 不過하다.

따라서 3,000萬 國民이 年間消費하는 糧穀 1,000萬㌧中 國內生産供給하는 것은 쌀 400萬㌧ 보리 200萬㌧, 其他雜穀 100萬㌧으로 約 700萬㌧이며 30%에 該當하는 300萬㌧을 輸入充當하고 있다.

輸入하는 糧穀은 小麥으로 200萬㌧, 其他 雜穀 100萬㌧ 水準이다. 總食糧의 自給은 어려운 實情이다. 主穀인 쌀과 보리만 1976年까지 自給하고 不足食糧은 小麥과 옥수수를 輸入充當하려는 糧政方向이 여기서 導出된 것이다.

2,000年代에 이르게 되면 人口 5,000萬名을 넘을 것이 展望되고 있고 糧穀의 需要는 糧穀消費가 더 많은 畜産物需要의 增大때문에 現在의 糧穀消費보다 約 2倍가 되는 2,000萬㌧ 水準이 될 것으로 豫測된다.

우리의 主穀인 쌀을 生産할 수 있는 논의 面積은 120萬ha, 이것은 앞으로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며, 다만 反當生産性은 現在의 350kg 水準에서 最大 600kg으로 約 60%의 增大以上은 어려울 것이다. 지난 10年間 쌀의 生産은 1960

年의 300萬㎏에서 1965年에 350萬㎏, 1970年代에 400萬㎏으로 增加하여 年平均 3%의 增産을 示顯하여 왔다.

따라서 쌀 消費의 相當量이 小麥消費로 轉換되지 않고서는 쌀의 自給도 物理的으로 不可能한 狀態이다.

主穀의 하나인 보리는 1960年의 150萬㎏ 生産에서 1970年代에 200萬㎏ 水準으로 增加하여 年平均 3%의 增産을 示顯하였으나 보리의 栽培面積은 100萬ha 水準에서 큰 變動이 없다. 그동안 보리의 增産은 1960年代의 反當 160kg 水準에 1970年代에 220kg 水準으로 約 40% 높아졌기 때문인데 多幸히 보리의 生産은 앞으로 栽培面積도 畓裏作을 最大로 擴大하면 50%는 擴大될 수 있으며 反當 生産量도 300kg(35%增)까지는 可能한 것으로 推測되고 있다. 即 보리는 2倍 以上의 增産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보리增産과 보리混食을 勸奬하는 施策은 여기에서 導出된 것이다.

어차피 耕地面積不足으로 總食糧의 自給이 不可能하다면 生産性이 낮은 小麥과 옥수수의 生産을 포기하고 輸入充當하는 代身 增産이 可能한 食糧作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國際市勢도 높고 需要도 增大하는 콩의 生産은 現在 34萬ha에서 26萬㎏을 生産하고 있으나 10萬㎏ 程度의 不足量을 輸入充當하고 있다. 콩은 生産技術 向上으로 反當生産量은 0kg 水準에서 倍加될 수 있을뿐 아니라 논두렁 밭두렁을 利用栽培함으로서 最少限 國內需要量을 自給한다면 年間 1,500萬$의 外貨節約이 可能하다.

우리는 감자 고구마의 生産도 하고 있으나 西洋에서 主食으로 하고 있는 감자가 우리나라에서는 季節的 間食으로 極少量이 消費됨으로서 25萬ha에서 67萬㎏(生産量으로 230萬㎏)의 薯類生産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감자는 채소와 2毛作이 可能하고 고구마는 開墾地에서 生産性이 가장 높은 作物로서 開墾可能野山을 25萬ha 以上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重要한 增産可能作物이며 季節別 감자混食, 고구마混食 또는 調理方法의 硏究에 依한 需要開發이 이루어 진다면 食糧自給에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벵그라데쉬의 사람들을 비롯하여 世界到處에서 하루에도 10,000名씩이나 먹을 것을 찾아 아귀다툼을 하면서 죽어가는 오늘의 世界에서 韓國의 食糧難은 너무 異色的이다. 먹을 것이 없는 食糧難이 아니라 韓國사람만의 嗜好食品인 맛있는 쌀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食糧難이다.

쌀은 世界의 食糧이 아니고 世界的 商品이 아니다. 쌀은 東南亞諸國에서만 主食이 되고 있다. 쌀은 남는다고 해서 아무데나 輸出할 수도 없고 不足하다해서 어데서나 輸入할수도 없는 地域商品이다. 따라서 美國을 비롯한 一部國家를 除外하고는 日本을 비롯한 쌀 主食國家들은 쌀의 自給政策을 最高目標로 하고 있으며 無制限增産政策을 取하는 나라도 없다. 쌀의 世界市場은 美國에서 輸出하는 200~250萬㎏이 支配하고 있다. 따라서 쌀의 國際價格은 조금만 增産되면 폭락하고 조금만 減産되면 폭등한다. 糧穀價格의 安定을 爲해서 美國 日本등 國家는 休耕政策을 쓰고 있다.

지난 해 쌀은 1972年度의 異狀氣候로 世界的인 凶作에 따라 從來 150$/톤 水準에 長期間 머물러 있던 쌀값이 700$/톤을 넘는 狀態를 招來하였다.

國際쌀값이 오름에 따라 우리나라 쌀값도 한때 18,000원/叭까지 올랐다. 果然 國際쌀값이 오르면 韓國쌀값도 올라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輸出을 하지 않는다. 1973年에는 2,900萬石以上의 쌀을 生産 豊作을 이루었고 1972年에는 移越된 政府在庫는 400萬石이 넘어 올해는 가장 쌀이 豊足한 한해가 될것으로 생각했었다.

지난해 11月부터 시작된 石油波動을 비롯한 資源波動은 國內物價上昇을 불러 이르켰고 急激한 物價上昇은 國民들로 하여금 糧穀購買를 刺戟함으로서 쌀값은 年初부터 指定된 最高價格 12,000원/叭을 超過하여 急上昇勢를 示顯하였다.

政府는 米價安定을 위하여 政府米를 無制限放出하였고 放出趨勢는 當初 豫想했던 水準을

훨씬 超過하여 年間 450萬石으로 放出調節하려던 計劃은 最少 700萬石 以上의 放出所要를 推算케하여 糧穀需給計劃에 蹉跌이 豫想되게 됐다. 事實 全國 500萬家口가 쌀 1叭씩만 餘分으로 確保한다면 하루 아침에 300萬石의 쌀이 必要하게 되며 이 數量은 지난해 總收買量 330萬石과 같은 것이다.

㎏當 700弗以上의 時勢로 輸入充當한다는 것이 國民經濟의 重大한 浪費라고 判斷한다면 庶民의 食糧需要를 充當할 物量을 混合穀으로라도 全量 確保하여 低廉한 價格으로 供給하는것이 所望스러운 것이며 單一米放出中斷措置는 이와 같은 政策의 表現이다. 混合穀만 現行價格 그대로 放出한다면 10kg袋當 990원 小賣 1060원 임으로 構成되는 쌀은 kg 當 112원67전 보리는 58원으로 計算됨으로서 가마당으로 하면 쌀 1叭에 9,014원, 보리 1叭에는 4,437원으로 單一穀放出價 쌀 10,500원, 보리 4,800원 보다 低價로 放出하는 셈이며 時價 15,000원의 比하면 훨씬 低廉하게 供給하는 것이다. 또한 糲精白度는 10.5分糲에서 9分糲로 引下함으로서 80kg 가마당 約 1kg의 쌀이 增量이되는 結果가 되어 500萬石을 放出한다면 5萬石 以上이 거져 생기는 셈이다.

年間 650百萬弗規模의 外貨를 糧穀導入에 써야 하는 우리로서는 쌀·보리·콩·감자·고구마의 增產으로 自給을 하고 混食運動을 大大的으로 展開해야 할 것이다. 不得已한 200萬㎏ 水準의 小麥만을 輸入充當하기에도 3億弗의 外貨가 必要하며 特히 쌀은 自由롭게 輸入할 수도 없다는 點을 勘案할때 國內에서 增產이 可能한 보리·감자·고구마의 需要開發을 積極化하여 食糧自給目標를 達成함으로서 食糧의 武器化時代에 犧牲되지 않도록 해야겠으며 特히 今年에 쌀 波動이 일어나지 않도록 混食療法을 다같이 協調하여 成功케 해야겠다.

註 : 統計數値는 理解를 돕기 위하여 正確한 數値 代身 槪算値를 使用했음

레코—드 센타

美美 소리사 代表 李 貞 夏

營業案內

◇ 각종레코—드·테이프 都產買

◇ 새유행 가요·팝—송등 인기가수의 디스크

◇ 녹음 代行 : 英語會話등 고객 여러분의 필요한 자료를 녹음

종로구 예지동 27번지(종로 4가 네거리 청계천쪽 택시 정차장앞)

전화 26—5 9 0 4